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이성용**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단어: 저출산, 전통적 이데올로기, 출산순위별 출산 결정요인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감소했다가 2005년 1.08을 최저 정점으로 한 후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증가하였다. 총 출생아 수도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438,100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06년 451,500명, 2007년 496,700명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2006년과 2007년에 출산율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2006년 2.1), 영국(2006년 1.84), 프랑스(2007년 1.96)뿐 아니라, 이탈리아(2007년 1.34), 독일(2006년 1.33), 일본(1.34)보다도 낮다.

2006년 이후 출산율 상승의 원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 이 논문은 2008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slee@kangnam.ac.kr

주된 원인의 하나는 비교적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79-1982년 코호트 여성들이 2005년 이후 주된 가임 연령층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조출생률과 달리, 합계출산율은 연령효과가 어긋난(biased)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계산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단지 주 가임연령층 여성들의 증가만으로는 합계출산율의 증가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자녀를 갖고 싶으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요인으로 자녀 출산을 연기했던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호전됨에 따라 자녀 출산을 시작 혹은 재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Bongaarts and Feeney, 1998;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Kohler and Ortega, 2002).

그러나 사회경제적 회복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며, 개인들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아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정석, 2007; 이성용, 2004; 2006). 이를테면, 남아 혹은 여아의 존재가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둘째아 출산보다 셋째아 출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성용, 1996; 2004). 그러므로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적 특성들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출산순위별로 분석할 것이다.

II.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개인의 행위와 태도는 그 혹은 그녀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행위나 태도가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이 되는지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상당히 결정되기 마련이다. 개인의 출산 행위나 태도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따라 합리적인 출산 행위나 태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녀를 많이 출산하려는 태도나 행위가 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합리적인 반면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이다. 또한 개인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 과거에 합리적인 행위나 태도가 비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가족문화가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확대가족제도에서 개인주의적 핵가족제도로 변하면, 다산을 강조했던 출산행위는 합리적

인 행위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합리적인 출산 행위나 태도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의 하강은 혼인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연기와 무자녀의 증가로 설명된다(Bongaarts, 2002; Caldwell and Schindlmayr 2003; Perelli-Harris, 2005). 그러면 개인이 출산을 연기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든 사회적 기제는 무엇인가? 주된 사회적 기제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Brewster and Rindfuss, 2000)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확산(van de Kaa, 1987, 2001; Lesthaeghe, 1995),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Ahn and Mira, 2001; Ranjan, 1999)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 연기 그리고 무자녀의 증가율로 인한 초저출산율은 경제적 요소와 이데올로기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특히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인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여성의 혼인연령과 첫아이 출산연령의 증가를 의미한다.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은 홀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높은 임금과 안정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능력은 결혼보다 동거나 독신 생활을 선호하고, 또 여성에게 자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요컨대, 여성 취업의 증대와 개인주의 확산이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도전이 남유럽-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일어났다. 남유럽은 북유럽보다 덜 산업화되었고, 문화도 개인주의 보다 가족주의가 강조되며 또 여성은 일보다 아내임과 어머니임이 더 중시하는 사회이다(Reher, 1998).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동거, 이혼 등이 성행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팽배한 북유럽 사회보다 더 낮은 초저출산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사회에서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초저출산의 출산변천이론은 주로 청년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의 남유럽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의 실업률과 저출산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유럽의 만성적인 높은 청년실업률은 젊은이들에게 노동시장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보다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또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을 택하게끔 만들었다.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적 전망은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집에 머무는 나이를 더 상승시키는 현상을 야기하였다(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북서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혼인연령과 첫출산 연령이 증가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 말부터 발생한 만성적인 높은 청년실업률은 젊은이들에게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게

하였고, 또 그러한 혼인과 출산의 연기는 1990년대 초저출산을 발생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Billari et al. 2002; 2004).

동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1990년대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체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는 합계출산율이 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연방 해체 후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였다. 전환 기간 동안, 고용불안과 실업, 빈부격차가 증가하였다. 자유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많은 동유럽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쇼크 그 자체였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보장받던 고용안정과 교육 후 취업보장 그리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했던 복지체제의 붕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남녀 모두에게 고용 불안, 건강, 교육, 주거 및 자녀의 교육비—을 팽배시켰고, 또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Caldwell and Schindlmayr 2003; Kohler and Kohler 2002; Perelli-Harris 2005).

한편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과 달리 스웨덴 등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높은 수준의 성평등, 특히 성평등 가족 지향 사회제도(gender equality in family-oriented social institution)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McDonald, 2000). 이 주장은 여성의 권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서구 특히 출산율이 최근 향상된 서유럽 혹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가족 친화적 혹은 여성 우호적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향상시키려 한다. 그러나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동일한 사회정책이라도 사회마다 그 효율성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던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볼 때, 프랑스가 일본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그 이유는 프랑스 여성과 달리 일본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면 그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oling, 2008).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성들도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면 기회비용의 상실이 생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평등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회복기인 2007년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겠다. 또한 이 변수들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들 독립변수들과 출산행위들 간의 관계는 출산순위별로 분석하겠다.

III. 자료 및 출산순위별 다변량 분석

1. 분석 자료의 구성 및 변수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는 200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7년 전국출산동향 조사'이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출산가구 표본은 전국 16개 시·도 저출산 담당부서를 통해 확보되었고, 2007년 비출산가구 표본은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다단계 층화표집에 의해 추출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실행되었다. 비록 이 표본의 추정치는 대표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출산요인들의 영향이 초저출산시기와 출산회복시기에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어긋남(bias)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출산율이 약간 상승된 시기 2007년에 자녀를 낳은 여성들의 출산에 미치는 이데올로기 요인, 경제상황에 대한 느낌,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영향이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그리고 셋째아 출산 행위를 각기 분석하기 위한 세 개의 자료가 준비되었다. 첫 번째 자료는 2008년 조사당시 자녀가 없는 여성들과 2007년에 첫 번째 출산을 한 여성들로, 두 번째 자료는 2008년 조사당시 자녀가 한 명인 여성들과 2007년에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들로,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2008년 조사당시 자녀가 둘인 여성들과 2007년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로 구성하였다.

각 자료에서 종속변수는 2007년에 자녀를 출산했으면 '1'로, 그렇지 않았으면 '0'으로 부호화되었다. 첫 번째 자료에서 종속변수는 2007년에 첫 자녀를 출산하여 2008년 조사 당시 1명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1'로,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두 번째 자료에서 종속변수는 2007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2008년 조사 당시 2명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1'로, 그렇지 않은 여성은 '0'으로, 세 번째 자료에서 종속변수는 2007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2008년 조사 당시 3명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1'로,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자료 1의 분석대상 수는 743명이고, 그 중 91.5%(680명)가 출산회복기 시기에 첫째아를 출생했고, 8.5%(63명)는 출생하지 않았다. 자료 2는 최소한 한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며, 응답자 중 47.8%(775명)가 출산회복기 시

기에 둘째아를 출생했고, 52.2%(846명)는 출생하지 않았다. 자료 3은 최소한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며, 응답자 중 27.9%(473명)가 출산회복기 시기에 셋째아를 출생했고, 72.1%(1222명)는 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자녀의 당위성, 집안일은 부인, 출산장려 분위기, 경기가 좋아짐, 가구경제, 부인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소득 수준, 부인의 직업, 부인의 종사상 지위 등이다. 각 변수는 아래와 정의되었고, <표 1>는 그 변수들의 빈도 및 각 자료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자녀의 당위성, 부인집안일, 출산장려분위기, 경기좋아짐, 가구경제는 t-test로, 나머지 변수는 교차분석으로 단순상관관계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자녀의 당위성. “부인은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응답한 응답범주가 ‘전적으로 찬성’이면 4로, ‘대체로 찬성’은 3으로, ‘별로 찬성안함’은 2로, ‘전혀 찬성안함’은 1로 부호화하였다. 자녀의 당위성과 출산회복기 출산행위 간의 관계가 t-test를 통해 분석되었고, 그 관계는 모든 출산순위에서 유의미하였다. 출산순위 0(첫 번째 자료)에서 출산회복기에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의 당위성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관계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출산순위 1(두 번째 자료)에서는 출산회복기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또 출산순위 2(세 번째 자료)에서는 출산회복기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의 당위성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 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집안일은 부인. 이 변수는 가족 내의 성평등을 나타내며, 질문문항은 “평소(공휴일 제외) 부인은 집안일 또는 자녀돌보는 일을 남편과 어느 정도 분담하였습니까?” 이다. 응답범주 ‘전적으로 부인’ 5, ‘대체로 부인’ 4, ‘부부가 함께’는 3, ‘대체로 남편’ 2, ‘전적으로 남편’은 1로 부호화하였다. 집안일은 부인이라는 인식과 출산회복기 출산행위 간의 단순 관계도 자녀의 당위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출산순위에서 유의미하였다. 출산순위 0(첫 번째 자료)에서 출산회복기에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부인이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그 관계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출산순위 1(두 번째 자료)에서는 출산회복기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또 출산순위 2(세 번째 자료)에서는 출산회복기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부인이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의식에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두 자료 모두에서 그 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출산장려 분위기. 출산장려 분위기는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의 부가 질문항목인 “부인은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찬성하십니까?”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 ‘매우 찬성’은 5, ‘찬성’은 4, ‘보통’은 3, ‘반대’는 2, ‘매우 반대’는 1로 부호화되었다.

출산분위기를 찬성하는 인식과 출산회복기 출산행위 사이의 단순 관계분석은 출산순위 2에서만 그 관계가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출산순위 0과 1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찬성하는 비율은 출산회복기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산순위 2에서는 출산회복기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장려 분위기에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경기 좋아짐. 경기좋아짐에 대한 질문항목은 “막내를 갖기로 결정한 시기와 막내 출산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경기상황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응답범주 ‘매우 좋아졌다’는 5, ‘좋아졌다’는 4, ‘변화없다’는 3, ‘나빠졌다’는 2, ‘매우 나빠졌다’로 부호화되었다.

출산순위 1과 2에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인식과 출산회복기 출산행위 사이의 단순 관계가 분석되었다. 그 관계는 출산순위 2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출산순위 1에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인식은 출산회복기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출산순위 2에서 출산회복기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이후 더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경향을 보였고, 그 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가구 경제. 이것의 질문항목은 “막내를 갖기로 결정한 시기를 전후로 비교해 볼 때, 닥의 경제상황(가구소득)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응답범주 ‘매우 좋아졌다’는 5, ‘좋아졌다’는 4, ‘변화없다’는 3, ‘나빠졌다’는 2, ‘매우 나빠졌다’는 1로 부호화되었다.

가구 경제가 좋아졌다는 인식과 출산회복기 출산행위 사이의 단순 관계는 경기좋아짐 변수와 마찬가지로 출산순위 1과 2에서 분석되었고, 그 관계는 출산순위 2에서 유의미하였다. 출산순위 1에서, 가구 경제가 좋아졌다는 인식은 출산회복기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기좋아짐과 마찬가지로 예상과 달리, 출산순위 2에서 출산회복기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이후 더 가구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부인연령. 부인 연령은 조사시점 당시의 응답자 연령을 말하며, 세 범주—만

29세 이하, 만 30-34세, 만 35세 이상—로 구성된다. 자료 1의 부인연령 분포는 만 29세 이하 40.2%, 만 30-34세 48.1%, 만 35세 이상 11.7%이다. 자료 2의 부인연령 분포는 만 29세 이하 27.5%, 만 30-34세 50.7%, 만 35세 이상 21.8%이고, 자료 3의 부인연령 분포는 만 29세 이하 12.9%, 만 30-34세 44.7%, 만 35세 이상 42.7%이다.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29세 이하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되는 반면 35세 이상의 구성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모든 출산순위에서 부인연령과 출산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부인교육수준. 이 변수는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말하며, 세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에는 고등학교 졸업이하, 두 번째 범주에는 4년제 대학 졸업이하, 세 번째 범주에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이 포함된다.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고졸이하의 응답자 비율은 증가되는 반면 대졸 이상의 여성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부인 연령과 달리 출산회복기의 출산 행위와 교육수준 사이의 단순 관계는 출산순위 2에서만 유의미하였다.

가구소득. 이 변수는 2007년 가구소득에 관한 것이다. 가구소득은 '185만원 미만' '185만원~247만원 미만', '247만원~309만원 미만', '309만원~464만원 미만', '464만원 이상(150%)' 등의 다섯 범주로 구성되었다. 교차분석 결과는 각 출산순위에서 가구소득과 출산 행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모든 출산순위에서 출산회복기의 출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부인직업. 이 변수는 응답한 여성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문직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전문직 여성의 비율은 출산순위 0에서 7.3%, 출산순위 1에서 5.1%, 출산순위 2에서 3.2%를 보여주어, 출산순위가 올라갈수록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부인직업과 출산회복기 출산 행위 사이의 관계는 출산순위 1과 2에서 유의미하였다.

부인종사상지위. 이 변수는 응답한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자영업자, 고용주, 혹은 상용전문직이었던지에 관한 것이다. 그 비율은 출산순위 0에서 36.6%, 출산순위 1에서 26.0%, 출산순위 2에서 18.2%를 보여주어, 출산순위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종사상지위와 출산회복기 출산 행위 사이의 관계는 모든 출산순위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1> 출산순위별 빈도표 및 단순 비교분석

	출산순위 0 (N = 743)	출산순위 1 (N = 1621)	출산순위 2 (N = 1695)
무자녀	8.5%(63)		
자녀 하나	91.5%(680)	52.2%(846)	
자녀 둘		47.8%(775)	72.1%(1222)
자녀 셋			27.9%(473)
자녀필요			
자녀수 0, 1, 2	3.16	3.31	3.38
자녀수 1, 2, 3	3.53	3.40	3.51
부인집안일			
자녀수 0, 1, 2	3.54	3.78	3.94
자녀수 1, 2, 3	3.73	3.93	4.03
출산장려분위기			
자녀수 0, 1, 2	3.33	3.17	3.11
자녀수 1, 2, 3	3.17	3.14	3.24
경기좋아짐			
자녀수 0, 1, 2		2.07	2.14
자녀수 1, 2, 3		2.05	2.00
가구경제			
자녀수 0, 1, 2		2.74	2.81
자녀수 1, 2, 3		2.70	2.69
부인연령			
29세이하	40.2%(298)	27.5%(445)	12.9%(219)
30-34세	48.1%(357)	50.7%(822)	44.4%(751)
35세이상	11.7%(87)	21.8%(353)	42.7%(723)
부인교육수준			
고졸이하	25.8%(191)	30.5%(492)	41.1%(694)
대졸	69.3%(513)	65.2%(1051)	56.3%(951)
대학원이상	4.9%(36)	4.2%(68)	2.6%(43)
소득수준			
185만 미만	16.7%(113)	17.0%(254)	16.9%(263)
185-246만	23.5%(159)	24.2%(363)	22.2%(345)
247-308만	23.2%(157)	25.8%(386)	27.0%(421)
309-464만	22.9%(155)	19.5%(292)	18.9%(295)
464만원이상	13.6%(92)	13.5%(202)	15.0%(233)
부인직업			
전문직	7.3%(54)	5.1%(83)	3.2%(54)
전문직아님	92.7%(689)	94.9%(1538)	96.8%(1641)
종사상지위			
고용주 상용근로자	36.6%(272)	26.0%(422)	18.2%(308)
아님	63.4%(471)	74.0%(1199)	81.8%(1387)

2. 첫째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표 2>는 첫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모형 1a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의 문제를 남성보다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의식,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찬성하는 태도 등이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1a에서 자녀의 당위성만이 2007년 첫째아 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b는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의 세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검정하기 위해 우도비 카이 자승 값(the likelihood-ratio chi-squared statistics) 즉 $G2(Ms | Mf) = -2(Ls - Lf) = G2(Ms - Mf)$

<표 2> 첫째아 출산에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N = 743		
	모형 1a	모형 1b
상 수	0.96	2.34
자녀필요	0.29*	0.36**
부인집안일	0.29	0.27
출산장려분위기	-0.23	-0.26
부인연령		
29세이하		1.221*
30-34세		1.043***
35세이상		
부인교육수준		
고졸이하		-1.46
대졸		-1.22
대학원이상		
소득수준		
185만 미만		2.73***
185-246만		0.85*
247-308만		1.16**
309-464만		0.43
464만원이상		
부인직업		
전문직		0.64
전문직아님		
종사상지위		
고용주 상용근로자		-1.33***
아님		
G(M1a M1b)		78
df		10

유의도 수준: 0.01은 ***, 0.05는 **, 0.1은 *

가 사용되었다. Ms는 단순 모형(예를 들어 모형1a)을 그리고 Mf는 타당한 변수들이 첨가된 적합한 모형(이를테면 모형 1b)을 나타낸다. 적합성(goodness-of-fit) 검정의 자유도는 단순 귀무 모형(simple null model)과 적합한 모형(fitted model) 사이의 차원 차이를 말하며, 단순 귀무 모형의 모수(parameter)의 수와 적합한 모형의 모수의 수 사이의 차이와 동일하다. 우도비 카이 자승 값이 카이분포의 값보다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적합한 모형이 단순모형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그리고 우도비 카이 자승 값이 카이분포의 값보다 작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적합한 모형이 단순 모형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 1b와 모형 1a 사이의 우도비 카이 자승 값은 78로 자유도 10에서의 카이 자승 임계값(18.3, $\alpha=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형 1b가 모형 1a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가정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자녀의 당위성은 첫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인집안일 변수와 출산장려분위기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들과 출산회복기의 첫째아 출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인의 연령, 소득수준, 그리고 부인의 종사상 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수준과 직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연령변수 분석결과는 조사 당시 35세 이상의 여성이 35세 미만의 여성보다 첫째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은 30대 초반 이하의 여성보다 첫째아를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수준 변수 결과는 높은 가구소득을 가진 여성(이를테면 309만 원 이상)이 낮은 가구소득을 가진 여성보다 첫째아 출산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고용주 혹은 상용근로자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첫째아 출산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여성, 즉 높은 소득수준과 비교적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또 늦은 나이에 결혼했을 여성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낮은 여성보다 첫 자녀를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둘째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표 3〉는 둘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모형 2a와 모형 2b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의 문제를 남성보다 여성의 일

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의식,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찬성하는 태도 등이 둘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나타낸다. 모형 2b와 모형 2a 사이의 우도비 카이 자승 값은 261.1로 자유도 10에서의 카이 자승 임계값(18.3, $\alpha=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형 2b가 모형 2a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가정된다.

<표 3> 둘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N = 1621				
	모형 2a	모형 2b	모형 2c	모형 2d	모형 2e
상 수	-1.88***	-2.16***	0.16	-0.26	-1.92***
자녀필요	0.22***	0.23***			0.22***
부인집안일	0.27***	0.20***			0.22***
출산장려분위기	-0.06	-0.03			0.01
경기좋아짐			-0.04	0.01	-0.00
가구경제			-0.05	-0.11	-0.11
부인연령					
29세이하		0.86***		0.95***	0.90***
30-34세		0.80***		0.82***	0.81***
35세이상					
부인교육수준					
고졸이하		0.09		0.16	0.10
대졸		0.08		0.10	0.05
대학원이상					
소득수준					
185만 미만		0.02		-0.01	-0.03
185-246만		0.12		0.12	0.08
247-308만		-0.12		-0.10	-0.15
309-464만		-0.11		-0.18	-0.14
464만원이상					
부인직업					
전문직		-0.05		0.10	0.07
전문직아님					
종사상지위					
고용주 상용근로자		-0.91***		-0.85***	-0.89***
아님					
G(M2a M2b)		261.1			
df		10			
G(M2c M2d)				242.9	
df				10	
G(M2b M2e)					113.5
df					2
G(M2d M2e)					102.3
df					3

유의도 수준: 0.01은 ***, 0.05는 **, 0.1은 *

모형 2c와 모형 2d는 최종아 출산 후의 우리나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구 경제에 대한 인식이 둘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나타낸다. 모형 2d와 모형 2c 사이의 우도비 카이 자승 값은 242.9로 자유도 10에서의 카이 자승 임계값(18.3, $\alpha=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형 2d가 모형 2c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가정된다.

모형 2e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변수들, 경제 인식 변수들, 그리고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 모두를 한꺼번에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 2e와 모형 2c 사이의 우도비 카이 자승 값 113.5은 자유도 2에서의 카이 자승 임계값(5.99, $\alpha=0.05$) 보다, 그리고 모형 2e와 모형 2d 사이의 우도비 카이 자승 값 102.3은 자유도 3에서의 카이 자승 임계값(7.81, $\alpha=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형 2e는 모형 2c와 모형 2d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가정된다.

모형 2b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필요와 부인집안일 등의 이데올로기적 변수가 2007년 출산회복기의 둘째아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장려 분위기는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첫째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조사 당시 34세 미만의 여성들이 35세 이상의 여성보다 출산회복기 시기에 둘째아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인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그리고 부인의 직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교적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종사상 지위를 가진 부인은 첫째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둘째아를 덜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유의성은 모형 2d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모형 2d에서 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는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모형 2e의 분석결과는 이데올로기적 변수들과 모형 2b와 2d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출산회복기의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셋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표 4>는 셋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둘째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모형의 개선도를 측정하였다. 우도비 카이 자승 값은 모형 3b가 모형 3a에 비해, 모형 3d가 모형 3c에 비해, 그리고 모형 3e가 모형 3b와 모형 3d에 비해 개선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 3b의 분석 결과에서 자녀의 당위성, 가부장적 의식, 그리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변수가 2006년과 2008년 출산회복기의 셋째아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이데올로기 변수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셋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산장려 이데올로기 정책이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보다 셋째아 출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혹은 다산한 여성이 자신의 다산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예상과 달리,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셋째아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막내를 출산하기 이전보다 출산한 후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들보다 출산회복기에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았고, 또 막내를 출산하기 이전보다 출산한 후에 가구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보다 셋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낮았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악화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둘째아의 출산을 연기하거나 멈추려는 경향과는 상반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출산회복기 시점에서 오히려 셋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낮았다.

반면 우리는 이러한 발견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 순서가 바뀐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수입이 일정한 상황에서 많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자녀에 드는 비용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가구 경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다자녀 출산 여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부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과는 약간 달리, 조사 당시 35세 이상의 여성들은 30-34세 사이의 여성들과는 출산회복기 시기의 셋째아 출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9세 이하의 여성보다는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았다. 부인 연령과 첫째아 그리고 둘째아 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들을 덧붙여 해석하면, 결혼을 빨리한 여성일수록 첫째아와 둘째아를 일찍 출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셋째아를 출산할 확률도 높아진다.

부인의 교육수준 변수는 첫째아 둘째아 출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셋째아 출산에서는 고졸이하 학력 여성이 대학원이상 학력 여성보다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보다는 셋째아 출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 변수의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첫째아 출산에서는 최고소득의 여

<표 4> 셋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N=1695

	모형 3_a	모형 3_b	모형 3_c	모형 3_d	모형 3_e
상 수	-2.93***	-3.72***	-0.18	-0.79	-2.88***
자녀필요	0.23***	0.24***			0.25***
부인집안일	0.15**	0.13*			0.11
출산장려분위기	0.11*	0.16***			0.16**
경기좋아짐			-0.16**	-0.19***	-0.16**
가구경제			-0.15**	-0.14*	-0.13
부인연령					
29세이하		0.58***		0.66**	0.58***
30-34세		0.29		0.31	0.25
35세이상					
부인교육수준					
고졸이하		0.88**		0.83**	0.87**
대졸		0.43		0.32	0.37
대학원이상					
소득수준					
185만 미만		0.09		0.03	0.03
185-246만		-0.51**		-0.49**	-0.49**
247-308만		-0.36*		-0.38*	-0.34*
309-464만		-0.43**		-0.41**	-0.45**
464만원이상					
부인직업					
전문직		-0.50		-0.60	-0.68
전문직아님					
종사상지위					
고용주 상용근로자		-0.35*		-0.28	-0.30
아님					
G(M3a M3b)		213.2			
df		10			
G(M3c M3d)				202.7	
df				10	
G(M3b M3e)					287.6
df					2
G(M3d M3e)					282.7
df					3

유의도 수준: 0.01은 ***, 0.05는 **, 0.1은 *

성이 그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의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이 낮았고, 둘째아 출산에서는 소득수준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셋째아 출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여성이 최저 소득 수준을 제외한 그 밑의 소득 수준 여성들보다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여성이 많은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첫째아 혹은 둘째아 출산보다

는 셋째아 출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인의 직업은 첫째아 둘째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셋째아 출산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인의 종사상 지위는 모형 3e에서 첫째아 출산과 둘째아 출산과 달리 셋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미치는 글

이 연구의 발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이를테면, 출산장려 분위기를 찬성하는 태도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셋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세 번째 아이의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첫째아와 두 번째 출생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근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해볼 때,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셋째아 출산보다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이 발견은 출산순위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차별화될 당위성을 제시한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당위성은 모든 출산순위에서의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 집안일 혹은 자녀돌보기를 부인의 몫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 내 성평등이 출산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맥도날드(McDonald, 2000; 2006)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발견이다. 이러한 발견은 분명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는 페미니즘의 목표와 출산장려를 피하는 인구정책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의 목표 대상은 출산행위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 아니라 여권 향상과 성평등인 반면, 인구정책의 목표는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다(Hodgson and Watkins, 1997). 만일 인구정책이 요구하는 것과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것이 상부상조하거나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다. 이를테면, 출산억제를 목표로 했던 우리나라 가족계획정책은 여권 신장을 꾀하는 페미니즘과 서로 요구의 목표가 부합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억제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갑자기 전환하여 이제는 출산장려를 꾀하는 인구정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사안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에서는 여성우호적인 인구정책이 여성에게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남성이 일차적 가계 경제 책임자이라는 인식이 널리 뿌리박힌 한국에서, 만일 여성우호적인 인구정책이 일부 맞벌이 중·상류층 여성들에게 특혜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많은 중·하류층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거 출산율이 높았던 중·하류층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하강할 위험이 있다¹⁾.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서구가 다르다. 맥팔레인(Macfarlane, 1986)에 따르면, 영국의 부모는 자녀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구국가의 부모들은 이해관계로 자녀를 키운다. 요컨대, 영국에서 자녀는 애완동물(pet)과 마찬가지로(Macfarlane, 198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무도 서구와 우리나라는 다르다. 서구에서는 부모의 책무가 유한한 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관에서는 무한하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공동의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행위가 성평등의 관점보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가족주의 관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이성용, 2007). 따라서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평등주의 혹은 여성우호적 이데올로기보다 오히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증시하는 전통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부인 연령 변수는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 첫아이, 둘째아이, 그리고 셋째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출산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 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소득수준 변수의 분석은 최고 소득 수준의 여성들이 그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여성들보다 첫째아 출산을 할 확률이 낮은 반면, 둘째아 출산에서는 소

1) 페미니즘과 시장경제가 결합함으로써 출산과 혼인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McLanahan, 2004).

득수준이 무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셋째아 출산에서는 오히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셋째아 출산을 할 확률이 높았다. 여기서 우리는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일단 아이를 출산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들보다 다산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첫째아 혹은 둘째아 출산보다 오히려 셋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넷째,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 고용주 혹은 상용근로자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모든 출산순위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비교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개인주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막내출산 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가구 경제가 좋아졌다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셋째아를 덜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아 출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다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 증가가 다산 여성들에게 가구경제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 느낌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둘째아 출산을 연기했던 동유럽 국가들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석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전망” 《한국인구학》 27(2): 1-32.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이성용 (1996) “행위모형에 의한 26 비서구국가의 성선호 유형” 《한국인구학회》 19(2): 19-45.
- 이성용 (2004) “성선호 원인에 대한 한국과 자메이카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109-141.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이성용 (2007) “성 선호와 자녀의 가치의 인과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 《사회와 이론》 11: 125-169.

- Ahn, N. and P. Mira (2001) "Job Bust, Baby Bust: Evidence from Spanish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3): 505-522.
- Billari, F. C., M. Castiglioni, T. C. Martin, F. Michielin, and F. Ongaro (2002) "Household and Union Formation in a Mediterranean Fashion: Italy and Spain," in E. Klijzing and M. Corjin (eds.), *Fertility and Partnership in Europe: Findings and Lessons from Comparative Research*, Vol. 2, Genova and New York: United Nations.
- Billari, F. C. and H-p Koh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oling, P. (2008) "Demography, Culture, and Policy: Understanding Japan's 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2): 307-326.
- Bongaarts, J.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ment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 419-443.
- Bongaarts, J. and G. Feeney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Brewster, K. L. and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 Caldwell, J. C. and T. Schindlmayr (2003) "Explanation of the Fertility Crisis in Modern Societies: A search for commonalities" *Population Studies* 57(3): 241-263.
- Casterline, J. B. (2001) "The Pace of Fertility Transition: National Patterns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 pp.17-52, Bulatao, R. A. and J. B. Casterline(edited). *Global Fertility Transition . Supplement to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Hodgson, D. and S. C. Watkins (1997) "Feminism and Neo-Malthusians: Past and Present Allia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469-523.
- Kohler, H-P, F. C. Billari and J. A.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ohler, H-P and J. A. Ortega (2002) "Tempo-adjusted Period Parity Progression Measures: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Delayed Childbearing for Fertility in Sweden, the Netherlands and Spain" *Demographic Research*

- 6(7): 91-144. (available at <http://www.demographic-research.org>).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n pp. 17-62, Karan O. Mason and An-Magritt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Oxford: Clarendon Press.
- Macfarlane, A. (1986) *Marriage and Love in England 1300-1840* Oxford: Basil Blackwell
-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 510.
- McDonald, P. (2000) "Gender Equal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cLanahan, S. (2004) "Children an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607-629.
- Perelli-Harris, B. (2005) "The Path to Lowest-low Fertility in Ukraine" *Population Studies* 59(1): 55-70.
- Reher, D. S. (1998) "Family Ties in Western Europe: Persistent Contras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03-234.
- van de Kaa, Dick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57.
- van de Kaa, Dick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In Pp. 290-331. Bulatao, R. A. and J. B. Casterline(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Supplement to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ew York: Population Council.

[2009. 1. 7 접수 | 2009. 3. 27 채택]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Rise of Fertility Rates by Each Parity

Sung Yong Le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ndividual's ideological factor,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ffect the fertility behavior during the fertility recovery periods-from 2006 to 2007- by each parity. For conducting this study, the 2008 Korean Fertility Survey Data are used. The respondents in this data consist of 1,467 women born their children at 2007 and 1,000 women not having their children at the recovery periods of fertility rate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individual's ideological factor,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fertility behavior differ by each parity. Second, the government policies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re needed to consider not only providing the economic support but also emphasizing the traditional ideology having the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behavior in order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s. Third, the policy decreasing the age at the first marriage is needed.

Key Word: low fertility rate, traditional ideology, the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behavior at each parity